발행등록 11-1371029-000167-06
ISSN 2233-8632

정보와 지혜

2026년 《오늘의 도서관》은 삶의 이야기를 잇고 넓히며
우리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확장(Expansion)'의 여정을 담습니다.
그 여덟 번째 걸음에서는 범람하는 정보를 통찰력 있게 선별하고 체화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지혜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46 2026 10

2026 10

오늘의 도서관

vol. 346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표지 이야기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계절,
바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책장을
넘겨봅니다. 문장 사이를 거니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모이고, 비로소
우리의 일상도 가을처럼 깊어집니다.
일러스트. 제이비(JB)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6년 10월 1일
발간등록번호 12-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민동용, 이은경, 조선영, 최윤경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82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CONTENTS

2026 10 vol. **346**

주제에 다가가다

04 **주제 바라보기**
정보와 지혜 깊이 읽기
나의 그물은 정보의 해일도 두렵지 않다

08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찾아보는
무수한 정보 속 진실을 읽는 지혜

12 **지혜를 만나는 두 권의 책**
정보를 가려내어 지혜로 벼리는 사유
생각을 생각한다

16 **주제 돌아보기**
생각에도 마찰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한 여성 교육자의 눈으로 읽어낸 옷과 화장
꾸민다는 것, 1930년대 신여성의 멋

20 **사서 큐레이션**
당연한 세계를 다시 읽는 법
익숙한 것들의 이야기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혜가 머무는 숲, 실천이 자라는 둥지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책장 너머로 펼쳐지는 과학의 즐거움

32 **세계의 도서관**
세계를 품은 책들의 성소
바티칸 도서관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세상의 소음 속 깊은 정적

40 **문장 너머의 세계**
아이스크림처럼 자주 맛봐야 하는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

44 **타인의 삶 읽기**
세계 표준을 바탕으로
세계적 문자를 만들다
세종대왕

48 **장면이 된 문장들**
끝난 세계에도 삶은 계속된다
《도그 스타》가 그린 생존과 희망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5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10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정보와 지혜 깊이 읽기

나의 그물은 정보의 해일도 두렵지 않다

정보의 바다는 바야흐로 해일 경보. 쏟아지는 뉴스, 방대한 데이터, 사방으로 뻗은 링크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를 낚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물을 촘촘히 짜야 한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길을 잃다

유튜브 채널 '뜬뜬'의 웹 예능 <풍향고>가 독특한 여행법으로 인기를 모았다. 유재석과 출연자들은 스마트폰 앱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야 한다. 숙박, 교통편, 식당 등을 정해야 하는데 제작진이 편집한 작은 안내 책자 외에는 쓸 수 없다. 말하자면 20여 년 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여행과 닮았다. 그들은 정보를 극도로 제한한 채 결정을 해야 하고 당연히 좌충우돌의 실수가 터져 나온다.

시청자들은 깔깔대지만 저 여행을 따라 해 보고 싶은 생각까지는 들지 않으리라. 이제 스마트폰만 켜면 호텔, 렌터카, 공연, 식당에 대한 갖가지 정보가 쏟아진다. 여행 유튜버의 영상, 사용자들이 올린 리뷰와 별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연히 정보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 그런데 막상 식당을 고르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머리가 멍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을 맞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읽어야 해? 내가 무엇까지 알아야 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서 괴롭다. 이 고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10년 웹진 <슬레이트>에서 심리학자 보건 벨은 말했다. "정보 과부하에 대한 우려는 정보 자체의 등장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철학자 세네카는 푸념한다. "책이 많으면 정신이 산만해진다(Distringit librorum multitudo)." 그가 현대인이 접하는 TV, 유튜브, 이메일, 뉴스, 메시지, SNS의 정보량을 보면 기겁을 할 것이다.

진짜와 가짜가 뒤엉킨 자극적인 정보의 늪

또 다른 문제는 매일 우리가 만나는 정보와 지식 속에 진짜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는 데 있다. 흥미 위주의 유튜브 지식, 단톡방의 정치 가십,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교수의 주장….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솔깃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기에는 그런 정보가 만들어내는 폐해를 절실히 체험하기도 했다. 페루에서 생강이 코로나 특효약으로 널리 쓰였던 정도는 약과다. 미국에서는 이산화염소가 살균·소독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뉴스가 널리 퍼졌는데, 이를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성분을 직접 먹었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물론 개개인이 모든 정보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기는 벅차다. 성수동이나 홍대 앞의 편집숍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여러 매장을 비교해 가며 발품을 팔면 같은 제품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전문가의 안목을 빌리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선택에 쓰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 일간지, 지상파 TV 등의 소위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와 의견의 편집숍 역할을 해왔다. 사람들은 큰 고민 없이 TV 뉴스를 믿고 신문 칼럼니스트의 생각에 동조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과거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는 미디어,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던져주는 유튜브 채널, 뉴스의 외피를 쓰고 검증되지 않은 가십을 쏘아대는 숏폼…. 기성 언론은 이들과 조회수 다툼을 벌이면서 닮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대중은 자신들의 입맛에 쏙 맞는 말만 전해주는 뉴미디어로 완전히 옮겨가기도 한다. 이러한 미디어는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만을 선별해 보여주고,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음모론을 퍼뜨리고, AI를 동원한 거짓 영상을 검증 없이 전달하기도 한다.

주체적인 사유를 가로막는 '뇌 썩음'의 경고

정보가 다양해지고 누구든 접근이 쉬워졌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기성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무작정 믿지 않고, 그 출처가 되는 인터뷰, 통계, 논문을 직접 찾아보는 일도 가능하다. 개인이 언론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고 여론을 움직여 언론사의 수정과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성실함과 현명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의 과잉, 과민, 피로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간하는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출판부는 이 단어가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SNS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소하고 하찮은 자료를 과잉 소비하면서 지적 상태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음을 차단한 텅 빈 방에서 지혜를 낚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상상력이 좋은 편이라서 아예 그냥 벽을 쳐버려요. 상대편도 다 지워버리고, 저랑 과녁만 두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 저만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쏘는 편이에요." 우리에게도 사색을 위한 이런 텅 빈 방이 필요하다.

"신문 칼럼 하나도 단번에 읽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 가는 범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계속 짧고 자극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 얻는 쾌감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정보를 접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두자. 그때 명상을 하면 더욱 좋다. 가끔은 모든 외부로의 문을 닫고 긴 책을 읽자. 남이 주는 정보에 만족하지 말고, 나 스스로 충만한 진실이 가득한 글을 써보자.

이명석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 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포착해 왔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도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겨레>에 '이명석의 어차피 혼잔데'를 연재 중이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찾아보는
무수한 정보 속 진실을 읽는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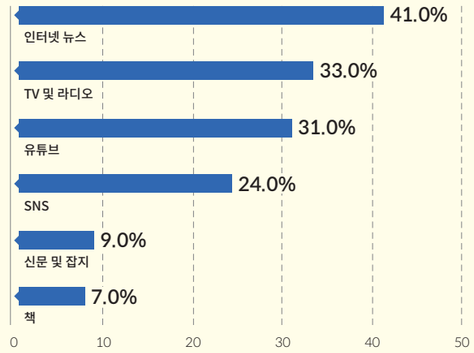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온갖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읽을거리와 볼거리도 넘쳐난다. 하지만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과 왜곡이 진실을 분별할 시야를 어지럽힌다. 눈앞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도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세종도서 선정 도서

1
주로 **어떤 매체**에서 **정보**를 얻나요?

설문에 참여한 10~60대 응답자의 평균 83.8%가 '책 외에도 정보와 지식을 얻는 다양한 창구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매일 이용하는 매체로 '인터넷 뉴스'(41.0%)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책'은 7.0%에 그쳤다. 매체 신뢰도 역시 'TV 및 라디오'(63.0%), '인터넷 뉴스'(60.0%), '유튜브'(35.0%) 등 방송·온라인 매체가 '신문 및 잡지'(25.0%)와 '책'(22.0%) 같은 인쇄 매체를 앞섰다.

●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매체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해력&질문력 관련 조사, 2023 / 한국리서치, 문해력에 대한 조사, 2024
*대상_만 13~69세 남녀 1,200명 /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오미 배런 지음, 전병근 옮김 | 어크로스 | 2023



종이책을 넘어 전자책과 오디오북, 동영상까지 학습 매체가 더없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저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이상 읽기의 표준이 될 수 없는 오늘날에는 종이책과 디지털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읽기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읽기의 목적에 따른 매체 활용법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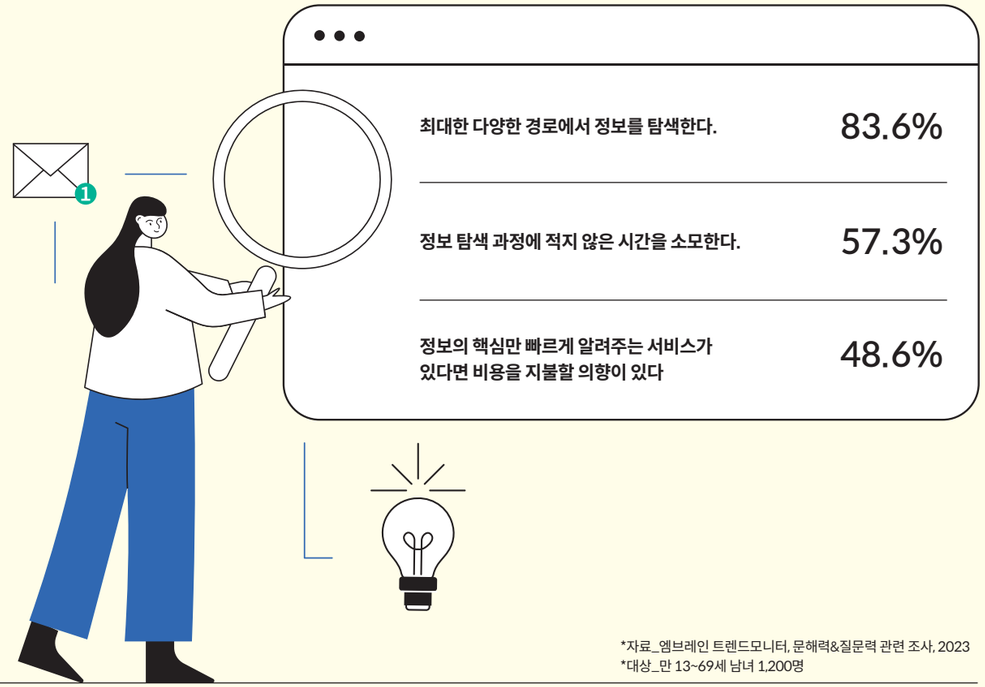
《생활 독서》
유광수 지음 | 북플랫 | 2025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우리는 끝없이 보기만 할 뿐 읽지 않는다. 이 책은 영상 미디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읽고 사유하는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왜 다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더 깊고 넓게 사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읽어야 삶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지 풀어낸다.

2
필요한 **정보**를 잘 **찾고** 있나요?

응답자 10명 중 8명(83.6%)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다'라고 답했다. '정보 탐색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한다'라는 응답은 57.3%로 집계되었다. 또한 '원하는 정보의 핵심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라는 의견은 31.7%였으며, '정보의 핵심만 빠르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48.6%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늘어났지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실제로 얻고자 하는 '알맹이'를 추려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해력&질문력 관련 조사, 2023
*대상_만 13~69세 남녀 1,200명

《직관과 객관》
키코 야네라스 지음, 이소영 옮김 | 오픈도어북스 | 2026



방대한 정보와 수치 속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맹신하기보다 그 맥락과 구조를 읽어내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일상의 언어가 된 시대에 합리적 사고의 기준을 재정립한다. 데이터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하며,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 넓고 깊게 사고하는 길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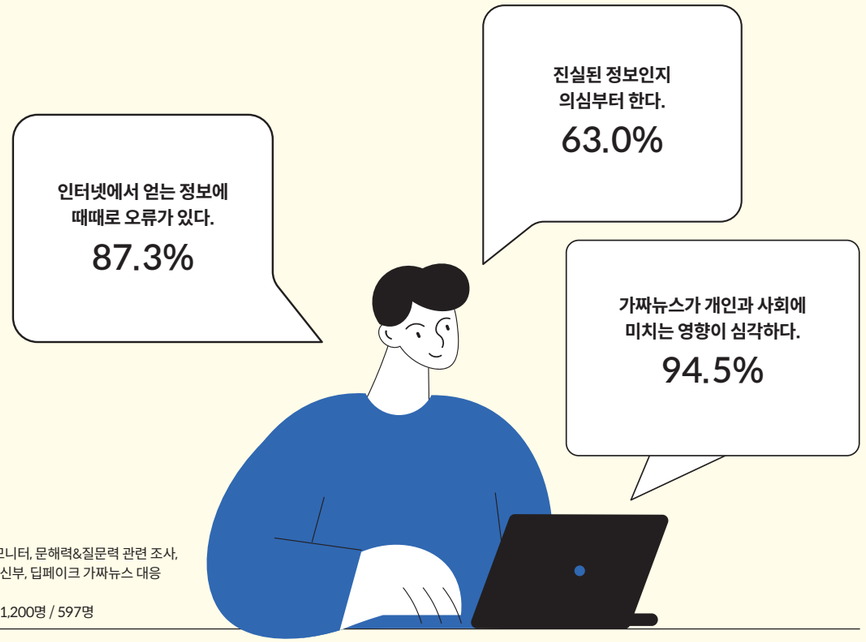
《TMI : 정보가 너무 많아서》
캐스 R. 선스타인 지음, 고기탁 옮김 | 열린책들 | 2023



세계적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저자 캐스 선스타인이 현대 사회의 흘러넘치는 정보를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살피며,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모른 채 넘겨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한다.

3
마주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무분별한 정보 수용을 경계하는 태도는 뚜렷했다. 응답자의 87.3%가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에 때때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진실된 정보인지 의심부터 한다'라는 비율도 63.0%에 달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가짜 정보가 진짜처럼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89.2%)라는 응답과 '뉴스 및 신문에도 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다'(88.9%)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94.5%)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응답자의 41.9%는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기술)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는 정보의 오류를 의심하면서도, 점차 정교해지는 거짓 정보를 온전히 가려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해력&질문력 관련 조사, 2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설문, 2024
*대상_만 13~69세 남녀 1,200명 / 597명

《가짜뉴스의 심리학》

박준석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저자는 인간이 가짜뉴스에 속기 쉬운 인지적 특성이 있으며, 누구도 그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가짜뉴스 생성 및 전파 사례를 분석하고, 가짜뉴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비판적 사고를 제안한다.

《거짓의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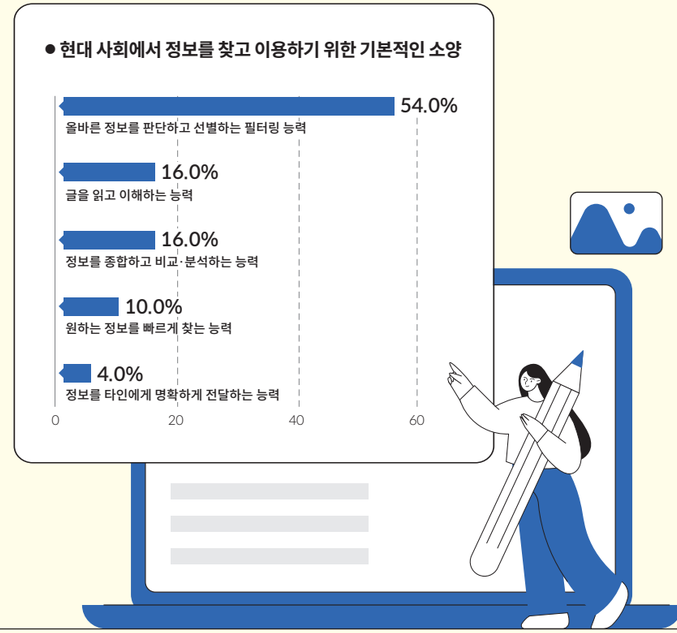
샌더 밴 데어 린덴 지음, 문희경 옮김 | 세계사 | 2024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 정보는 진짜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퍼진다. 책은 사람들이 왜 가짜뉴스에 이끌리고 믿게 되는지를 사회심리학적,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거짓 정보의 기원과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4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문해력**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응답자의 54.0%가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필터링 능력'을 꼽았다. 그렇다면 온·오프라인 환경에 따라 차이는 없을까? 인쇄 매체를 읽을 때, 온라인 활자 매체를 읽을 때, 온라인 영상 매체를 볼 때 각각 필요한 능력을 물은 결과 모두 '필터링 능력'이 가장 높았다.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문해력 역시 '정보 필터링'(51.0%)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정보 종합·비교·분석'(18.0%)과 '빠른 정보 탐색'(15.0%),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11.0%)이 뒤를 이었다. 즉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역량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자료_한국리서치, 문해력에 대한 조사, 2024
*대상_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슬기로운 팩트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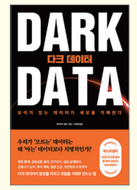
정재철 지음 | 무블출판사 | 2021



미디어 리터러시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대에 팩트체크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안목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폴리티팩트, 풀팩트, 팩트체크닷오르그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기관들의 노하우를 비롯해 피노키오 지수 등의 팩트체크 기법과 사진, 영상 등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일상 속 팩트체크 요령을 담았다.

《다크 데이터》

데이비드 핸드 지음, 노태복 옮김 | 더퀘스트 | 2021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의심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없거나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를 물리학의 암흑물질(dark matter)에 빗대어 다크 데이터라 부른다. 형태도 다양하고 발생 이유도 가지각색인 다크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 다양한 유형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보를 가려내어 지혜로 벼리는 사유
생각을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장착된 기능이지만 잘 쓰려면 기술이 필요한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다루고 굴려오며 방법을 터득한 이와 엄밀하게 분석하고 칼날처럼 벼려온 이에게 생각 사용법을 듣는다.

글. **박사**(북칼럼니스트)

설명서 없는 인간을 위한 생각 설명서

어째서인지 설명서를 읽는 일은 무척 귀찮다. 새 기계를 사는 것은 좋지만 그 기계를 잘 쓰라고 친절하게 기능을 써 준 설명서는 던져 버리고 만다. 무작정 만져 보면서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설명서를 정독하는 것만 할까. 알면서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경험으로 아는 것은 전체 기능에서 얼마 안 될 텐데도, 그저 작동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마는 것이다.

기계는 그래도 된다. 새 카메라를 사도 몇 년만 지나면 낡고,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니까. 새 제품이 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설명서를 언제 읽는단 말인가. 그렇지만 내 몸이라면 어떨까?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몸과 머리. 약정이 끝나지 않은 망가진 휴대전화처럼 죽을 때까지 질질 끌고 가져가야 할 몸과 머리라면 설명서를 꼼꼼히 정독해서 잘 써 볼 법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에는 설명서가 없다.

그러다 보니 되는 대로 쓰이는 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각이라는 기능이 그렇다. 얼마 전 명민한 글을 쓰기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소설집의 북토크에 갔다. 반짝이는 발상으로 가득 찬 그 소설을 읽은 독자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묻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한다."라고 답했다.

경험으로 획득한 진리다. 우리의 오해는 '내가 생각을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저 생각이 쓰라고 나를 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인가? 그럴 리가. 다행히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이 나를, 내가 생각을 잘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서를 써 주었다. 제조사(?)에서 나온 정품 설명서는 아니지만, 풍부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혜안은 우리가 장착하고 태어난 기능을 잘 쓰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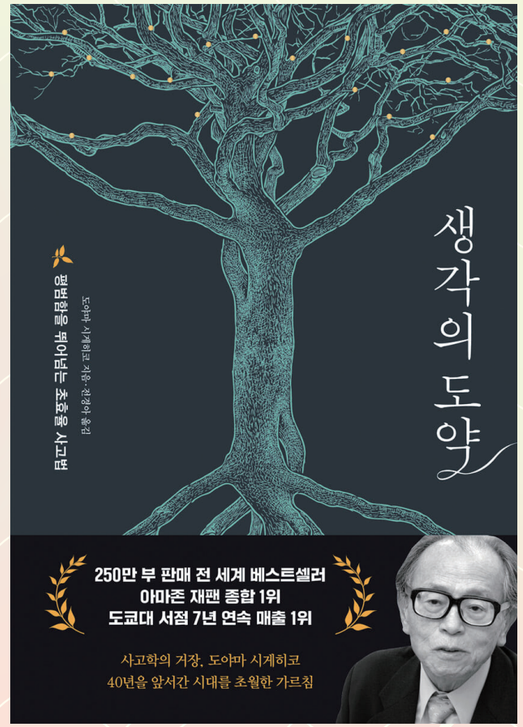
기다림 속에서 생각을 발효시키는 지혜

'지(知)의 거인'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도야마 시게히코가 쓴 《생각의 도약》은 언제 와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눌러앉히고 숙성시키고 발전시켜 쓸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그가 보기에 생각은 극히 섬세한 어린아이와 같다. 모처럼 생각해 낸 착상이 다른 사람에게 단칼에 부정당하면 심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더라도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식이다.

"빤히 보이는 아첨 같은 말을 들으면 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초인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은 뻔한 말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힘을 얻고,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164쪽)"

그에게 생각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와 가장 먼 곳에 있다.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 비로소 분리되어 있던 생각들이 결합하며 화학 작용을 일으킨다.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팔려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식한 사람이 생겨난다."



선별된 정보를 숙성시켜 나만의 창의력을 틔우는 법
《생각의 도약》
도야마 시게히코 지음, 전경아 옮김 | 페이지2북스 | 2025

"인간에게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자연 속에서, 의식을 초월한 곳에서 쉬게 해줘야 한다.(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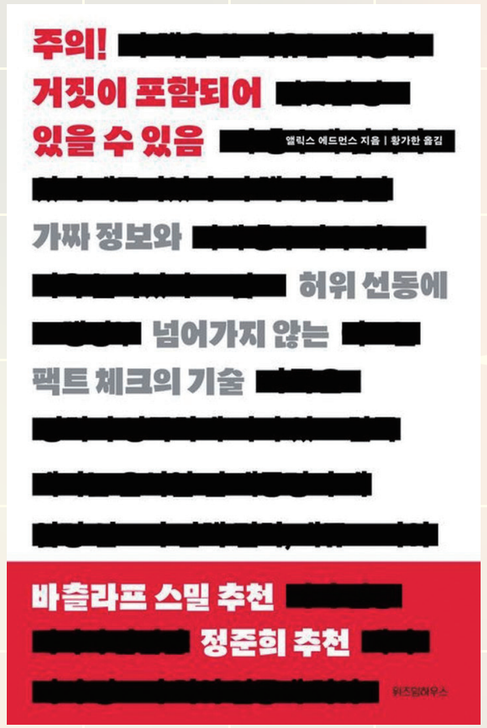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싹틔우고 발효시키고 재워서 섞고 숙성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스크랩, 카드와 노트 쓰기, 독서, 정리, 글쓰기, 낭독, 망각 등등. 그는 그동안 해 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독자에게 전수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저 생각을 담는 화분으로만 기능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와 가치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머리는 결코 어중간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구별하고, 의미 없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기에 개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기능이다.(241쪽)"

두뇌가 기억하는 기능만을 중시한다면 컴퓨터에 밀릴 수밖에 없고,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닥치는 대로 섭렵한다면 이 또한 컴퓨터에 밀릴 것이다. 이 책은 생각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같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본적인 과학적 방법을 잊어버린다."



자극적인 정보에 속지 않고
나를 지키는 비판적 사고
《주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앨릭스 에드먼스 지음, 황가한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6

오류와 편향에 휘말리지 않는 검증의 기술

도야마 시게히코가 생각을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자라나는 '생명체'처럼 다루고 있는 반면, 런던경영대학원 재무학 교수인 앨릭스 에드먼스는《주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서 논리적이고 명료한 '기술'로 설명한다. 이 책의 부제는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팩트체크의 기술'이다.

그가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는 강력한 이유로 지목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확증편향이고 또 하나는 흑백논리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 없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오류다. 저자는 풍부한 예를 들어 설득력 있게 문제를 짚는다. 자연치유법으로 암을 이겨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스마트폰 앱과 책을 팔았으나 알고 보니 암에 걸린 적이 없었던 벨 깁슨의 사례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다이어트 책의 주제였으나 극단적 주장이었을 뿐 근거는 없었던 앳킨스 다이어트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확증편향과 흑백논리에 속절없이 흔들리는지 보여준다.

그는 잘못된 정보의 홍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짚어야 할 것을 네 단계로 설명한다. 우선,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사실이 데이터가 아님을, 데이터가 증거가 아님을, 증거가 증명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단계마다 자신이 속았던 경험을 예로 삼아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지점을 보여준다. "증거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 평생의 업인 교수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뜻(7쪽)"이라는 솔직한 예를 보며, 우리는 팩트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공유와 비판 이전에 잠시 멈춰 보기

《주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는 개인으로서, 조직에서, 사회의 관점에서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 보면 어떨까? 첫 번째, 공유하기 전에 일단 멈춰라. 두 번째, 비판하기 전에 일단 멈춰라. 이 두 가지만 해도,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의 폐해에서 비켜날 수 있을 것이다.

박사 책에 대해, 문화에 대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쓰고 기록하고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해 왔다. 주요 저서로《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나에게 여행을》,《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주제 돌아보기

생각에도 마찰이 필요하다

챗GPT가 요약해 주고, 정리해 주고, 구조화해 주는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사고하지 않게' 된다.
편하게 답을 얻을수록, 우리는 질문을 덜 던지게 되고,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수록 새로운 탐색은 줄어든다.
따라서 본질적 증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마찰이다.
사고의 관성을 깨뜨리는 저항, 낯선 충격, 불편한 질문과 같은
마찰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통찰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中에서 | 박용후 지음 | 경이로움 | 2025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한 여성 교육자의 눈으로 읽어낸 옷과 화장
꾸민다는 것, 1930년대 신여성의 멋

20
사서 큐레이션
당연한 세계를 다시 읽는 법
익숙한 것들의 이야기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혜가 머무는 숲, 실천이 자라는 둥지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책장 너머로 펼쳐지는 과학의 즐거움

32
세계의 도서관
세계를 품은 책들의 성소
바티칸 도서관

한 여성 교육자의 눈으로 읽어낸 옷과 화장

꾸민다는 것, 1930년대 신여성의 멋

3·1 운동 이후 일제 식민통치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언론이 대거 탄생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의식주 각 분야의 생활 개선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1920년대부터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백의(白衣)를 버리고 색의(色衣)를 입자는 주장을 여러 지면에서 펼치기 시작했다.

글. 염복규(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일 보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一千七百三十五號 (三)

부인

내가본 우리살림 곳 철 점은무엇인가

색옷은조흐나 개성에맛도록

화장미보다도건강미가조화

[1] 淑明女高 金仁洙

老人 (2)

縣賞二等當選短篇小說

金支鴻作

<중앙일보>
1933년 1월 19일 자
'내가본 우리살림 곳칠점은 무엇인가: 색옷은 조흐나 개성에 맛도록 화장미보다도 건강미가 조화'

묵은 때를 벗고 색을 입히는 시간

천도교 기관지 <개벽>의 주요 논자였던 박달성의 '우리는 백의를 벗고 흑의로 갈아입자. 우리의 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도 속히 흑의인이 되자(개벽, 1921년 1월호)'라는 부르짖음은 당시 분위기를 실감 나게 전한다.

1930년대 들어서는 식민지 권력도 색의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별로 강연회, 강습회를 개최하고 선전 전단을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흰옷 입은 사람의 관청 출입을 금지하거나 관리, 경찰이 조선인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돌며 흰옷 입은 사람에게 먹물을 뿌리는 등 '강압적인'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민족주의 지식인과 식민지 권력 모두 흰옷의 세탁과 관리에 드는 수고, 활동의 불편 등을 이유로 색의를 장려했다는 점이다. 생활 개선의 측면에서 '근대적 가치'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려한 유행과 오래된 관습 사이에서

<중앙일보> 1933년 1월 19일 자 '부인란'에 실린 인터뷰 기사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전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이 김인수는 숙명여고 기숙사 사감이다. 이력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형적인 지식인 신여성이자 여성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김인수는 바람직한 옷차림에 대해 '조선옷이란 몇천 년 동안 우리 생활에 적당하도록 해내려온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요. 요새 와서 색을 많이 입는 것은 더욱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찬란한 무늬와 황홀한 색을 쓰는 것은 좀 어떤가 합니다'라고 답한다. 색의 쪽에 찬성하면서도 한복의 전통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색 착용이 사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한다. 아무래도 교육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경계 위에 선 지혜로운 보폭

인터뷰는 여성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화장 문제도 언급한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 가꾸기와 함께 화장품 제조는 큰 산업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미 1910년대부터 박가분(朴家粉) 같은 화장품이 제조, 판매되는가 하면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신식' 화장품 업체도 대대적으로 진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의 화장품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의 전체 신문 광고 중 화장품 광고는 약 광고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여성의 화장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 사이에서도 두 갈래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 '현하 문화 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형미를 숭상하는 것도 일반의 경향입니다. 동서를 물론하고 어느 문화 사회를 보든지 화장이란 것이 여성계에 있어서 상용적이 된 동시에 일대 소비품이 되어있는 것은 드러난 사실(신여성, 1931년 3월호)'이라는 주장처럼 화장을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본여자대학에서 유학하고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있던 황신덕은 '우리가 책보끼고 학교로 드나들던 그 때가 불과 10여 년의 옛날이건만 그 때의 여학생들은 화장도 요란하게 할 줄 몰르고 오직 공부에만 착심(着心)했는데, 오늘의 여학생들은 화장품 이름을 모르는 것이 없다(삼천리, 1935년 2월호)'라고 비판한다.

김인수는 '화장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대로 하지말고 그야말로 요새 부르짖는 건강미 그대로 꾸미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기자는 '넘쳐흐르는 유행의 첨단과 낡은 습관의 중간에서 좋은 것만 취해나가자는 굳건한 생각'이라고 하며, 그녀는 '교육자다운 뚜렷한 주견을 잃지 않은 오늘의 젊은 여성'이라고 상찬한다. 아마 이 정도가 당시 신여성에게 허용된 조선 사회의 경계선이었던 게 아닐까. '여고 기숙사 사감'으로서 김인수는 이 경계를 잘 지키고 있었던 셈이다.

염복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연구 분야는 한국근현대사·도시사다. 저서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화》,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3: 일제 강점기》가 있으며, 공저로는 《새로 쓴 한국사특강》, 《도시를 보호하라》 등이 있다.

사서 큐레이션

당연한 세계를 다시 읽는 법
익숙한 것들의 이야기

우리는 매일 익숙한 것들 속에서 살아간다. 감정과 관계, 말과 지명, 뇌의 작동 방식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보인다. 평범한 일상에 숨은 뜻밖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서의 추천 책들을 만난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검은 해바라기》

오윤희 지음 | 북레시피 | 2025



"태양을 사모해서 햇빛을 향해 무작정 고개를 들이미는 순진한 해바라기처럼. 나라는 해바라기는 지금 당장은 나를 따듯하게 비춰주는 상냥한 태양이 언젠가는 강렬한 열로 나를 무자비하게 말려 죽이리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341쪽)"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 수완.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다. 명백해 보이는 사건 뒤로 한 가족이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책은 청소년 범죄와 한 가족의 내밀한 균열을 그린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수완의 범죄 이면에는 가족 안의 왜곡된 관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촘촘히 얽혀 있다. 작가는 선과 악을 단순하게 나누지 않고 인물들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두려움과 불안, 뒤틀린 욕망이 인간의 내면을 잠식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사회파 미스터리를 좋아하거나 가족 관계 속 인정 욕구와 결핍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권한다. 사건의 진실을 좇으며 인간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오윤희 영문학을 전공하고 <코리아헤럴드>를 거쳐 현재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인간 심리를 밀도 있게 엮어내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장편소설로 《영숙과 제이드》, 《금붕어 롤렛》, 《수상한 간병인》 등이 있다.

국외문학

《오로라를 따라간 푸트만스 씨》

헨드릭 흐룬 지음, 최진영 옮김 | 드롬 | 2026



"눈을 떴을 때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207쪽)"

살다 보면 문득 그리운 사람이 있다. 곁에 없지만 마음속에 남은 사람이다. 이 책은 이런 그리움을 안고 원치 않던 여행길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다.

평생 숫자로 세상을 이해해 온 회계사 푸트만스 씨. 자신을 이해해 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직장마저 잃는다. 홀로 남은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오로라를 보러 패키지 버스 여행에 오른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과 12일을 보내야 하는 여행은 타인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그에게 고역이다. 그 끝에서 그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이 소설은 화려한 성장도, 따뜻한 위로도 말하지 않는다. 상실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집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위트 있는 문체로 쓸쓸하게 그려낸다. 마지막에는 푸트만스 씨가 보았을 오로라가 잔잔하고도 찬란하게 펼쳐진다.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 소중한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한다.

헨드릭 흐룬 네덜란드 작가로 사서로 일한 이력이 있다. 시사문예지 <어뢰>에 일기를 연재하며 주목받았으며,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로 사랑받고 있다. 대표작으로 《83과 4분의 1세 헨드릭 흐룬의 비밀일기》, 《삶이 있는 한》 등이 있다.

인문예술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때요?》

조슈아 플레처 지음, 정지인 옮김 | 김영사 | 2025



"좋은 심리치료는 판단의 대상이 되리라는 두려움 없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다. 당신의 가장 귀한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보관실이며,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것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받으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511쪽)"

밤새워 뒤척이며 별것 아닌 일을 몇 번이고 곱씹어본 적이 있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으로 무거웠던 순간이 있다면 이 책에 주목해 보자.

불안장애를 직접 겪은 심리치료사가 내담자와의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에세이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떠올리게 하는 '분석가', '불안이', '공감이' 등 13가지 내면의 목소리가 상담 장면 사이사이에 등장해 치료사 자신의 고뇌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낸다. 독자는 상담실에서 오가는 대화뿐 아니라 치료사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내면의 대화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 불안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조슈아 플레처 불안장애 전문 심리치료사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며 불안장애 환자들을 돕고 있다. 2013년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불안: 공황에 관한 공황》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찰나의 기억, 냄새》

김성연 지음 | 서해문집 | 2025



"세상이 근대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의장(儀裝)을 장착하는 데 몰두하던 시대, 시인은 무엇을 잃어 가고 있는지 가만히 호흡해 본다.(190쪽)"

1937년 부산을 찾은 헬렌 켈러에게 그곳은 어떤 냄새로 기억되었을까?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고향의 냄새는 왜 점차 쓸쓸하게 느껴질까?

《찰나의 기억, 냄새》는 문학 작품과 기록 속 후각 텍스트를 분석해 시대와 사회상을 읽어내고, 그 속에 담긴 감각의 의미와 작가의 인식을 탐색한 책이다. 개화기 조선 거리의 냄새, 근대 향수 소비문화의 형성,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현실 인식과 작품 속 냄새의 표상, 도시화 과정에서 변화한 일상의 냄새, 냄새라는 개념조차 사라진 SF 속 미래 인류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후각의 양상을 폭넓게 살핀다. 저자는 다양한 문학 작품과 문헌을 세심하게 읽어내며, 냄새가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문학과 역사, 향기와 감각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후각이라는 독특한 창을 통해 역사와 문학을 읽는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김성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다. 한국 근현대 문학과 문화사를 연구하며 윤동주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에 참여했다. 저서로 《서사의 요철》, 《영웅에서 위인으로》,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공저) 등이 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지명속담 이야기》

강순돌 지음 | 푸른길 | 2026



"낙동강 주변 습지와 삼각주 일대는 오리를 비롯한 철새들의 도래지로 유명하다. 철새로 날아온 오리가 낙동강 주변 습지나 하구에 있는 삼각주에 알을 낳았으나 부화하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가면 오리알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다.(247쪽)"

낙동강 오리알. 외톨이나 낙오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하필 낙동강일까?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에는 왜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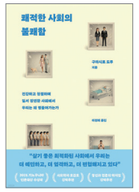
특정 지명이 들어 있는 '지명속담'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 생활 문화가 녹아 있다. 낙동강이 외로움과 낙오의 상징이 된 사연처럼, 익숙한 관용구 하나하나에 얽힌 흥미로운 내용이 책 곳곳에 실려 있다. 저자는 전국 각지의 지명속담을 수집해 속담의 의미와 유래는 물론, 지형과 교통 환경,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살핀다. 속담 속 지명이 단순한 장소명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회 인식, 지역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단서임을 짚어낸다.

여행이나 지도, 지명 유래에 관심 있는 독자는 물론 우리말에 숨은 이야기와 지역의 역사, 생활 문화가 궁금한 독자에게도 권한다. 무심코 지나치던 도로 표지판 속 지명이 다르게 읽히고, 우리 동네나 여행지의 이름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강순돌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를 거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상적 궁금증을 지리적·역사적 맥락에서 풀어내는 글을 써 왔으며, 저서로 《왜 거기에 수도가 있을까》 등이 있다.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이정미 옮김 | 생각지도 | 2026



"통념과 습관이 이토록 철저히 지켜진 적도, 법제도가 이토록 완벽히 작동한 적도, 거리와 인터넷 인프라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이토록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58쪽)"

하루라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고, 남 앞에 서기 민망하다. 그런데 이 익숙한 감각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청결과 자기 관리의 기준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쾌적함'의 이면에 숨겨진 배제와 압박을 파헤친다. 저자는 다양한 사회 적응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료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과 비슷한 도시 환경을 지닌 도쿄의 여러 현상을 분석해 건강과 청결에 대한 높은 기준, 저출생, 동선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공간 등을 폭넓게 살핀다.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에 맞춰 사람들이 관리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이들이 교정의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책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내면화한 규범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쾌적함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지쳐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하다.

구마시로 도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진료실 안팎에서 살펴보며, 우울·불안·분노를 사회적 조건과 연결해 분석하는 글을 써왔다. 저서로 《로스제네 심리학》 등이 있으며, 《마흔에는 어른이 될 줄 알았다》는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크리스 나이바우어 지음, 김윤종 옮김 | 클랩북스 | 2026



"사람들은 인생을 크게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종종 말한다.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계기, 커리어를 크게 바꾸겠다는 결심 같은 것 말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럴듯하게 들리던 이야기가 갑자기 덜커덩하며 크게 흔들린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사실 우뇌가 좌뇌에게 신호를 보낼 때 생긴다. '어이, 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때 우뇌는 좌뇌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거들을 조용히 관찰하다가 좌뇌에게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알려 준다.(153쪽)"

우리는 왜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할까? 좌뇌와 우뇌의 인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라는 자아도 좌뇌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책은 신경심리학자 크리스 나이바우어가 22년간의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한 교양서다. 저자는 좌뇌와 우뇌의 인식 방식에 주목하며,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가 실은 좌뇌가 끊임없이 지어내는 허구적 스토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신경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한다. 양쪽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장 말미의 '체험하기'에서는 연습 문제와 사고 실험을 통해 관련 개념을 직접 탐색하도록 돕는다.

뇌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탐구하고 싶거나 뇌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흥미로운 책이다.

크리스 나이바우어 미국 톨레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슬리퍼리록대학교에서 좌우뇌의 차이와 의식, 마음챙김 등에 대해 강의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현대 신경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아 환상과 고통의 구조를 분석해 왔으며, 주요 저서로 《하마터면 깨달을 뻔》이 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

대니얼 R. 브룩스·살바토레 J. 에이고스타 지음, 장혜인 옮김 | 더퀘스트 | 2026



"우리는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에서 적당히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 '적당생존'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47쪽)"

완벽한 존재만이 살아남는다면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진화론의 상식을 뒤집는 진화생물학서다.

저자들은 약 40억 년의 생물 진화사를 훑으며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적합했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덜 적합했던 변종이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완벽하게 최적화된 공룡은 멸종했지만, 적당히 부족했던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다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자들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붕괴, 에너지 고갈로 대표되는 현재를 '인류세의 가을'이라 표현하며 대위기를 경고한다. 동시에 위기를 통과할 잠재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완벽한 통제와 최적화를 정답이라 믿어온 사람,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비할 관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한다. 지속가능성을 넘어 생존 가능성을 상상할 때,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생존 전략임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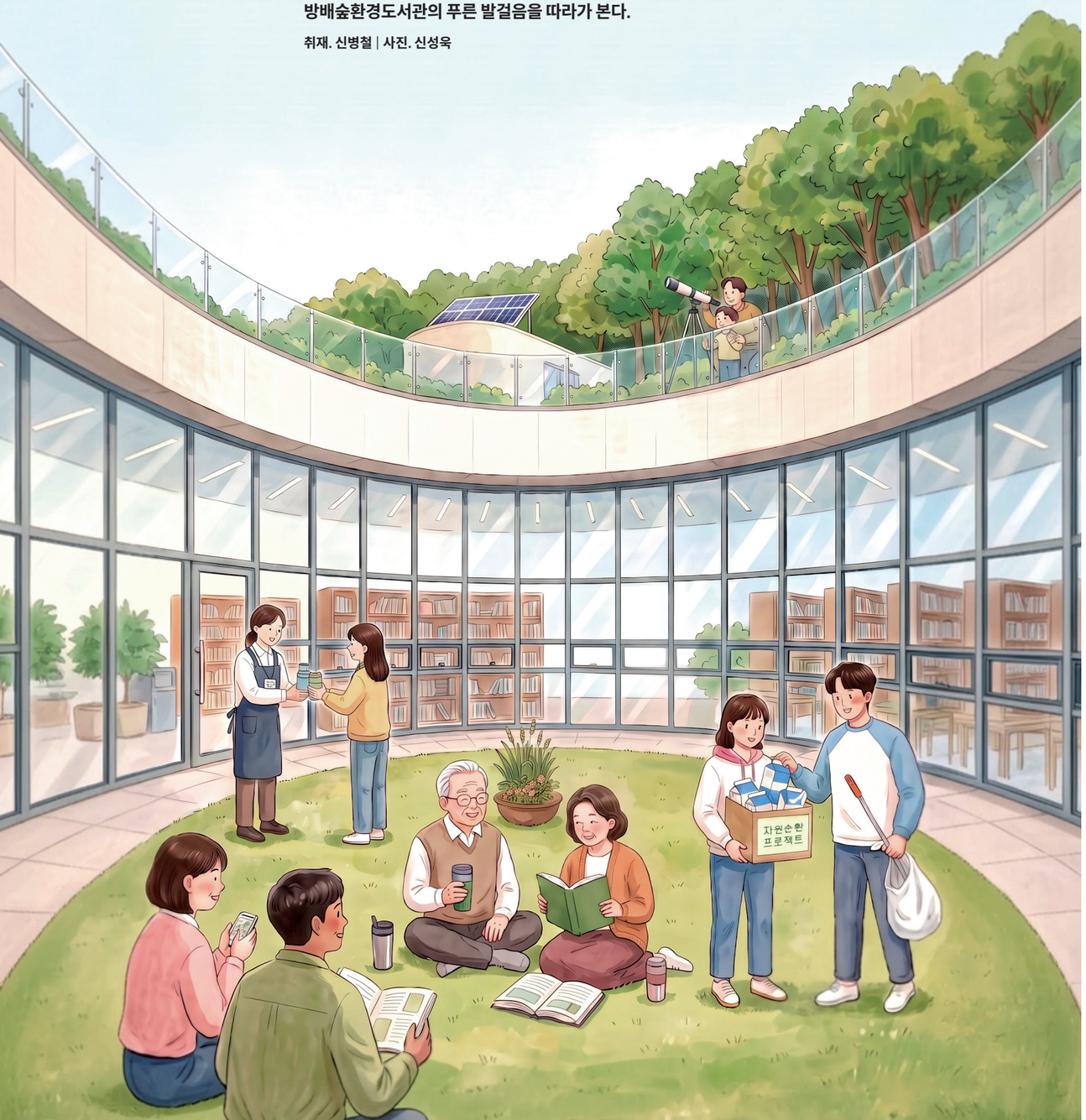
대니얼 R. 브룩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명예교수로 생물다양성·분류학·보존생물학을 연구했으며, 《스톡홀름 패러다임》 등을 썼다.
살바토레 J. 에이고스타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교 부교수이자 스텔렌보스 고등연구소 연구원으로, 《진화가 말하는 것》을 공동 집필했다.

지혜가 머무는 숲, 실천이 자라는 둥지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조용히 싹튼다. 책을 마주하고 휴식을 누리는 평온한 쉼터에 환경을 향한 고민을 더한 도서관이 이웃과 함께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섰다. 앎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와 연대해 작지만 큰 변화를 일궈 가는 방배숲환경도서관의 푸른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취재. 신병철 | 사진. 신성욱




1



2

1 하늘에서 내려다본 방배숲환경도서관. 숲속에 자리한 새 둥지를 빼닮아 '깨알둥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출처_인시추 건축사사무소, 김한석)

2 도서관 안뜰에 자리한 '방배숲 새 놀이터'. 논화분이 놓여 있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야생 조류가 찾아오는 먹이터이자 작은 생태 쉼터가 된다.

방배숲환경도서관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60-7
전화번호 02-537-6001
휴관 매주 금요일, 공휴일

숲속에 튼 지식의 둥지, 지역의 생태 거점이 되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의 녹음이 도심과 맞닿는 자리. 2023년 문을 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자연과 사람, 지식이 어우러진 생태적 안식처다. 숲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둥근 안뜰이 마치 새 둥지를 떠올리게 한다. 도서관의 별칭인 '깨알둥지' 역시 이 독특한 건축 구조에서 싹텄다. '환경 가치를 깨닫고 주위에 알린다'라는 뜻과 함께, 동물을 가두는 우리가 아닌 생명이 깃드는 둥지처럼 주민 스스로 환경 감수성을 키워 가는 보금자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름에서 전해지듯, 이곳은 환경특화도서관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편적 공공도서관의 토대 위에 시대적 화두인 환경을 결합해 '4-ZERO(제로 스트레스·플라스틱·에너지·웨이스트)'를 운영 원칙으로 세웠다. 편안한 휴식과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회용품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일상에 녹여내어, 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고민하는 실천의 무대가 되었다.

환경을 향한 진심이 담긴 도서관의 정체성

환경특화도서관이지만 서가에는 특화도서 코너가 따로 없다. 환경도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일반 도서와 함께 꽂아 두었다. 다만, 책등에 별도의 라벨을 부착해 이용자가 서가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환경도서를 접하도록 했다.

도서관의 정체성은 운영과 관리 방식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7종으로 세분화한 분리배출함과 텀블러 세척기를 곳곳에 비치했고, 도서관 내 카페 '보틀라운지'는 다회용기로만 음료를 제공한다. 각종 강연과 강좌 역시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전기차를 800여 회 완충할 수 있는 연간 약 6만 k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옥상 태양광 발전,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월 2회 실내 조명과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불 끄기 데이'까지, 공간과 운영 모두에 환경특화도서관으로서의 고민을 담아냈다.



3



4

3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쓰지 않는 에코백과 문구류를 기증받아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이용자들이 가정에서 세척하고 건조해 가져온 우유팩과 멸균팩을 모으는 수거함

환경을 대하는 도서관의 진심은 '직원 선제 실천(Staff-First)'이라는 남다른 조직 문화에서 출발한다. 사서들은 정기적으로 환경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주 1회 채식과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일회용품 없는 일상을 먼저 실천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녹여 낸다.

앎에서 실천으로, 삶 속에 스며드는 생태 독서

도서관 환경·독서 프로그램의 방점은 실천의 문턱을 낮추는 데 찍혀 있다. 거창한 담론을 앞세운 소비 억제 캠페인 대신, 스마트폰 사진을 정리하고 메일함을 비우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처럼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제안한다. 사소한 실천으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심어주며 자연스럽게 저탄소 생활로 이끄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리풀근린공원을 '제2의 자료실' 삼아 자연 체험과 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전문가와 함께 야생 조류를 탐사하는 '도서관 탐조단'과 계절별 생태를 관찰하는 '숲 체험 교실'은 도심 속에서 메마르기 쉬운 생태 감수성을 깨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환경도서를 바탕으로 토론과 전시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을 펼치는 '방배숲 환경도서 한 책 읽기'와 방학·학기 중에 진행하는 생태·환경 독서교실은 책을 통해 기후 위기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 확장의 중심축이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빚어낸 큰 변화

도서관의 진심 어린 실천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방문하는 공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는 50리터 종량제 봉투 5~6장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열람실 이용자의 80%가량이 개인 텀블러를 챙겨 다닐 만큼 도서관 전체에 친환경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렸다.

도서관이 거점이 되어 종이팩, 텀블러, 에코백, 문구류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고급 천연펄프가 소재인 우유팩과 멸균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지기 일쑤였던 자원이다. 이에 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종이팩을 모아 매달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와 화장지로 교환하고, 이를 지역 내 아동센터와 복지기관에 전량 기부한다.

도서관 안에서 싹튼 자원순환은 지역 사회로 퍼져 나갔다. 인근 초등학교 학급들이 종이팩 수거에 동참했고, 주변 카페들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우유팩을 따로 모아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방배숲 환경 서포터즈 '깨알러'는 상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종이팩을 수거하고, '줍줍러'는 동네 곳곳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자발적으로 펼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일궈 낸 변화는 안팎의 결실로 이어졌다. 도서관이 친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연평균 2만 5,000kg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5,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기여한 세계 각국 도서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SDG Stories'에 국내 도서관 최초로 등재되었고, 2025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건축기자재 대상,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았다.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나 수상 이력보다 더 값진 것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다. 사서들의 선제적 실천이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며, 도서관이 기후 위기의 실천적 해답을 모색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이라는 숲속의 작은 둥지에서 시작된 지식과 실천의 날갯짓이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그려 가고 있다.

미니 인터뷰



방배숲환경도서관 김동석 사서팀장

'도서관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어요. 시대가 변했듯 도서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고유한 정체성과 본질은 지키면서도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 가는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어요.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자 환경특화도서관으로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내일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책장 너머로 펼쳐지는 과학의 즐거움

이번 도서관 여행은 대한민국의 북쪽 끝자락 철원에서 행정수도 세종으로 이어지는 43번 국도를 따라 세 곳의 과학특화도서관으로 향한다. 초록빛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강동숲속도서관,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이어 생활 속에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화서다산도서관, 과학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 과학도서관까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이 즐거운 배움으로 바뀌는 길을 따라가 본다.

취재. 한율 | 사진. 이승헌



1



2


3

1 강동숲속도서관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우주 테마 장식물이 과학특화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2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과학자 최재천의 서재'. 최재천 교수가 기증한 진화 관련 도서 1,200여 권으로 채워졌다.
3 명일근린공원의 풍경을 마주하며 도서관 추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LP 청음 좌석

초록빛 숲속에서 과학을 만나다: 강동숲속도서관

서울 강동숲속도서관 곳곳에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과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1층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에 매달린 태양계 행성 조형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벽면의 우주인과 행성 장식, 과학 분야 서가까지 하나의 테마로 꾸며져 있어 마치 우주를 탐험하는 듯한 즐거움을 준다. 어린이자료실에서는 테셀레이션(도형 채우기) 퍼즐과 로봇 블록을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코너 '플레이 코딩'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그림책을 체험하는 '손으로 그림책 톡톡!'을 만날 수 있다. 도서관 곳곳을 오가는 AI 안내 로봇 '클로이'도 과학기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다. 책에서 얻은 호기심을 놀이와 체험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강동숲속도서관의 특징이다.

도서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6m 높이의 '과학자 최재천의 서재'는 과학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서가는 진화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소장했던 책 가운데 진화 관련 도서 약 1,200권을 기증받아 조성했다. 생명과 자연을 아우르는 13개 주제로 분류된 책을 통해 한 과학자의 연구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수 있다.

명일근린공원과 맞닿은 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숲을 품고 있다. 각 층에 마련된 통창 너머로 숲이 펼쳐져 어느 자리에 머물든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창가에는 1인용 안락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어 바깥 풍경을 더 가까이 마주하며 여유롭게 책을 읽기 좋다.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구조,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실내는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도서관이 추천하는 음악을 LP로 감상할 수 있는 LP 청음





4 화서다산도서관 종합자료실 특화자료코너에서는 기초과학부터 첨단 공학까지 7,300여 권의 과학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5 과학 특화 도서 전시 코너인 '사이언스 씨드(Science Seed)'에서는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선별한 다양한 과학 도서를 소개한다.

좌석은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책장을 넘기다 보면 차분한 일상 속으로 과학이 스며드는 이곳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이어가다: 화서다산도서관

수원 화서다산도서관의 이름에 담긴 '다산'은 수원화성 축성 과정에서 거중기 등 새로운 건축 기계의 제작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 실학자 정약용의 호다.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지식을 중시했던 그의 실학 정신을 계승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오늘날의 배움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

도서관의 이러한 정체성은 종합자료실에 마련된 특화자료코너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곳에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7,300여 권의 자료가 갖춰져 있다. 자연과학 자료가 약 3,100권, 기술과학 자료가 약 4,200권으로, 생명과 우주를 다루는 기초과학부터 정보기술과 첨단 공학처럼 일상과 산업에 활용되는 분야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테마별 추천도서코너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 속 과학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신 과학 이슈와 연구 동향을 담은 간행물도 다양하다. <BBC Science>, <뉴턴>, <과학동아> 등 대중 과학잡지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소년>, <어린이 과학동아>, SF 전문지 <벙커 K>, 과학과 사회를 함께 들여다보는 <스켑틱>과 <에피>, 최신 기술을 분석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까지 총 9종의 국내외 과학 분야 정기간행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의 호기심부터 성인의 깊이 있는 탐구까지,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과학을 만날 수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

책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도서관

대전 IBS 과학도서관은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시민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전체 소장 자료의 60% 이상이 과학 분야로,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서가에는 국내외 교양 과학서부터 연구기관 발간물과 전문 서적까지 폭넓게 갖춰져 있다. 우주, 생명, 환경 등 다채로운 주제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서가도 마련되어 있어





6 IBS 과학도서관 내부는 열람 테이블과 서가 곳곳에 식물을 배치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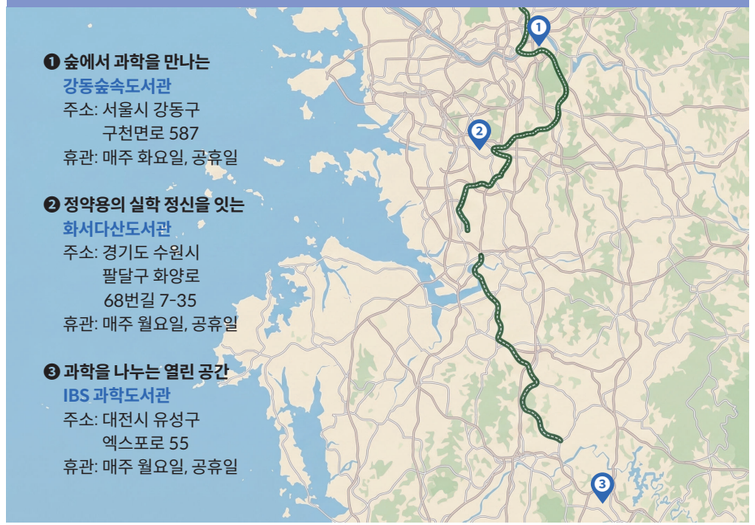
7 매거진존에는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과학잡지가 비치되어 있어 최신 과학 연구 동향과 이슈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일반 도서는 물론 만화로도 과학을 접할 수 있다. 최신 과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매거진존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과학잡지를 만나볼 수 있다.

과학 탐구는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자와의 만남으로도 이어진다. IBS 과학도서관은 과학자가 직접 쓰거나 선정한 책을 중심으로 과학 연구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과학자의 서재 속으로'를 운영한다. 올해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행사가 열린다. 시민들은 과학자가 어떤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답을 찾아가는지 직접 들으며 기초과학의 세계를 한층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

도서관은 원목 서가와 곳곳에 놓인 식물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서가 사이가 넓고 창가 좌석과 PC 이용 좌석이 여유 있게 배치되어 공간에 개방감을 더한다.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과학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조용히 책을 읽으며 머물기에도 좋다.

43번 국도 따라 찾아가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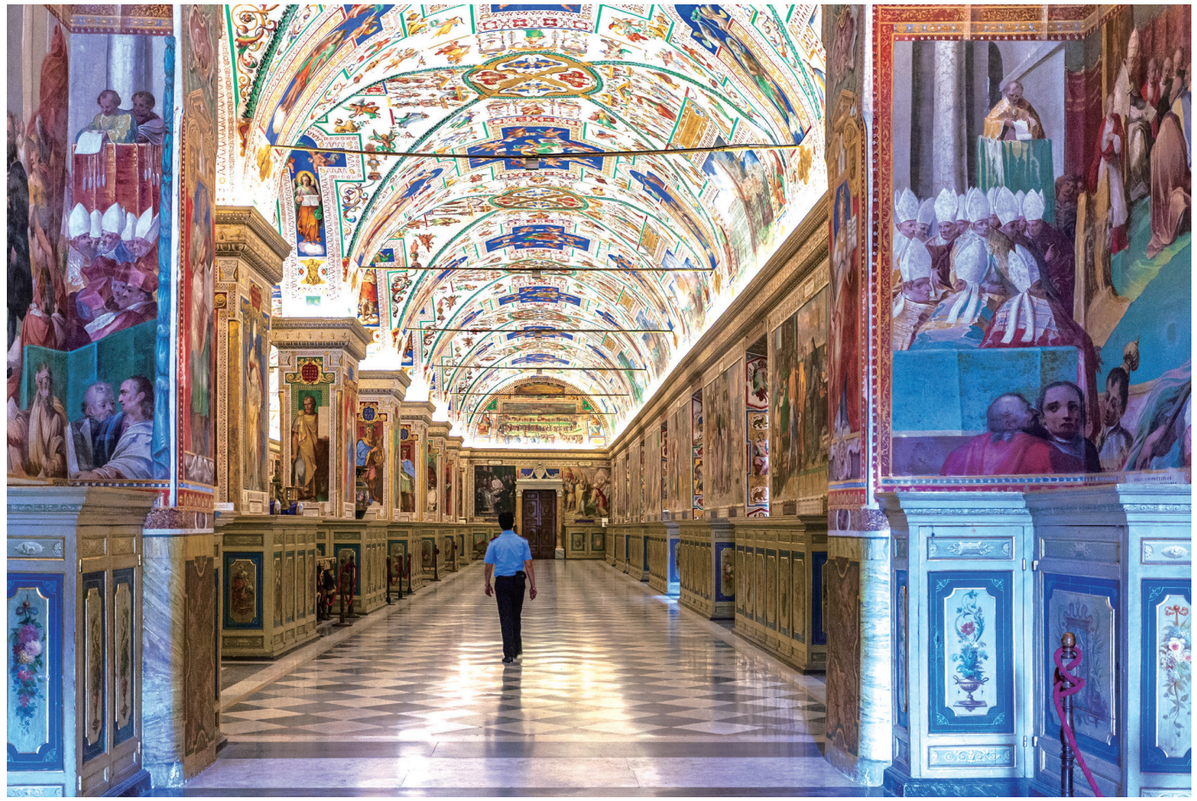


세계를 품은 책들의 성소

바티칸 도서관

인류의 지성이 걸어온 궤적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둘 수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역사와 문명은 망설임 없이 하나의 이름을 가리킬 것 같다. 바로 바티칸 도서관이다. 바티칸 궁전에 자리한 이 공간은 단순한 도서 수장고를 넘어 문명과 문명이 교차하고 시대를 뛰어넘은 지혜들이 호흡하는 '지식의 성소'이자, 전 세계 수많은 도서관의 원형이 되어준 '도서관들의 도서관'이다.

글.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장)



도서관의 중앙 홀인 시스티나 홀은 길이 약 120m에 이르는 공간으로, 벽면과 아치형 천장에 성경 구절과 역사적 사건, 과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가 장식되어 있다.

지식의 개방과 독보적인 장서 컬렉션

15세기 문헌학자이기도 했던 교황 니콜라오 5세는 교황청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도서관을 세웠다. 창설 이후 교황청 사서 바르톨로메오 플라티나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자들은 멸망해 가던 비잔티움 제국의 고대 그리스·로마 유산을 수집하고 보전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이렇게 탄생한 바티칸 도서관은 교황청만의 서고에서 나아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 지식을 개방하는, 지적이면서도 공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다. 현재 이곳에는 8만여 점의 필사본과 160만 권 이상의 인쇄본 장서, 그리고 수십만 점의 동전, 메달, 판화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보존 기관으로 꼽히는 진짜 이유는 단지 방대한 수량 때문만이 아니다. 보통의 도서관들이 개별 도서를 수집하고 분류한다면, 바티칸 도서관은 특정 시대와 지역, 한 가문이 일궈낸 장서 컬렉션 전체를 통째로 수집하고 보존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덕분에 단절될 뻔한 역사적 맥락과 학문적 계보가 하나의 공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양피지에 남은 문명의 기록

바티칸 도서관은 인류 문명사의 결정적 순간들과 직면하게 한다. 그중 하나인 4세기에 제작된 《베르길리우스 바티카누스》는 고대 로마의 거장 베르길리우스(기원전 70년~기원전 19년)의 작품 《아이네이스》와 《농경시》를 기록한 서양 고전 필사본이다. 76장의 양피지에는 고대 헬레니즘 미술의 전통을 계승한 50여 점의 정교한 세밀화가 수록되어 있다. 화려한 색채의 틀 속에 그려진 도판들은 고대 로마인의 의복, 건축, 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정돈된 라틴 대문자 체계 연구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중 하나인 《코덱스 바티카누스》는 성서 비평학과 문헌학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사본은 고급 양피지 위에 세 열로 깔끔하게 적혀 있어 초기 코덱스(책 형태) 양식의 정수를 보여준다. 15세기 도서관 창설 카탈로그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 성서 유산은 이후 텍스트 비평학과 현대 성경 번역학의 대전제가 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유산인 《코덱스 보르지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의 침략 이전, 메소아메리카의 미슈테카 혹은 아스테카 문명이 사슴 가죽 위에 천연 물감으로 그려낸 이 종교·천문 점술서는 동서로 길게 펼쳐지는 병풍 형태를 띤다. 신들의 형상과 역법,





1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천장과 목재 열람용 책상, 2단 책장이 특징인 메인 열람실은 학자와 연구원들이 고문서와 인쇄본을 열람하는 곳이다. (출처_Wikimedia Commons, via Dobroš)

2 바티칸 사도문서고의 수장고에는 희귀 문헌과 교황청의 역사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며, 문서 선반을 일직선으로 이으면 약 85km에 달한다.



《아이네이스》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빌라가 아이네이스와 아카테스를 아폴로 신전으로 안내하고 있다.
(출처_Wikimedia Commons)



《코덱스 바티카누스》는 한 페이지를 3단으로 나누고 그리스어 대문자를 띄어쓰기 없이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_Wikimedia Commons)



《코덱스 보르지아》에는 메소아메리카 아스테카 신화의 태양신 토나티우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역법·점술 기호가 표현되어 있다.
(출처_Wikimedia Commons)

신화적 의식을 화려한 원색으로 담고 있어 파괴될 뻔했던 신대륙 문명의 고유한 세계관을 증언하는 희귀 사료로 평가받는다.

동서양 지성의 집결지

이 도서관의 독보적인 정체성은 컬렉션을 완벽하게 보존한 데서 극대화된다. 낱권의 책을 모아둔 곳이 아니라, 지성사의 큰 줄기를 이루었던 장서들이 도서관 전체를 품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래한 '팔라티나 장서'는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의 핵심 지식 서고였다. 17세기 30년 전쟁 당시 화마 속에서 유실될 위기에 처했으나, 1622년 가톨릭 동맹군이 하이델베르크를 점령한 후 1623년 로마로 옮겨져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헌정되었다. 수백 마리의 노새 등에 실려 알프스산맥을 넘어온 3,700여 점의 필사본과 1만 3,000여 권의 인쇄본은 중세 유럽 사상사의 절정을 온전히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르네상스 문화의 후원자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가 모은 '우르비노 공작가 장서' 역시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화려한 서체와 세밀화를 통해 이탈리아 인문주의 예술의 정수를 고스란히 증언한다.

바티칸 도서관의 지평은 서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 세기에 걸쳐 수집된 '동방 필사본 컬렉션'은 문명 간 교류의 깊이를 보여준다. 시리아어 사본은 초기 기독교 신학과 중동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핵심 사료이며, 콥트어 사본은 고대 이집트어의 최종 형태로서 사막 교부의 영성 문학을 보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어 필사본은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자적인 기독교 전례 문화를, 아르메니아어 사본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아르메니아의 신학적 문헌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 철학, 의학, 천문학을 포함한 아랍어 문헌들은 중세 이슬람권의 학문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전해지는 문명적 다리 역할을 했다. 이처럼 방대한 지적 생태계들이 모여들면서 바티칸 도서관은 명실상부한 서양 문명사의 거대한 지적 방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록 매체가 다변화된 오늘날에도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수천 년 전의 양피지와 고문서들이 지닌 무게감은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15세기 니콜라오 5세가 선언했던 '학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창설 정신은 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자, 아프리카연구소장이다. 저서로는 《베르베르 문명》, 《시대의 지성 노암 촘스키》, 공저로는 《중동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 《7인 7색 아프리카》 등이 있다.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세상의 소음 속 깊은 정적

40
문장 너머의 세계
아이스크림처럼 자주 맛봐야 하는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

44
타인의 삶 읽기
세계 표준을 바탕으로 세계적 문자를 만들다
세종대왕

48
장면이 된 문장들
끝난 세상에도 삶은 계속된다
《도그 스타》가 그린 생존과 희망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세상의 소음 속 깊은 정적

미국의 모더니즘 시인 메리앤 무어는 “가장 깊은 감정은 언제나 침묵 속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요 안으로 자신을 들여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소란스러운 세계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이 어떠한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글.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는 침묵의 거울

옛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자주 찾아가던 장소는 대부분 인공적인 소음이 없는 곳이었다. 수행자들을 위한 수도원이나 암자는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우선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침묵을 충분히 누리며 수행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마음 밑바닥이 움직인다. 침묵은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고 바라는 진짜 마음, 진실한 감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에 살피는 세 권의 그림책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정적이 느껴지는 순간을 담고 있다. 《새벽》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새벽 낚시를 간 어린이의 이야기다. 깊고 깊은 어느 산속 강가에서 긴 밤을 보내고 고요한 물안개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떨리는 순간을 그렸다. 《파도가 차르르》는 주위의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물리치고 모래성 쌓기에 몰두하는 어린이가 나온다. 이 모습은 외부의 간섭보다 내면의 동력에 집중하는 예술가의 태도와 닮았다. 《3초 다이빙》은 경쟁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남들을 제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기고자 다이빙대에 서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노 젓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 《새벽》

9월의 어느 날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배를 탄다. 마을에서 제일가는 사냥꾼이었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산과 강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차근차근 일러준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산 근처에서 멈추고 짧은 기도를 읊조리는가 하면, 옛이야기 같은 모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밤이 깊어 가면서 책 속의 소리는 서서히 줄어든다. 그리고 새벽의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른 세수를 마치고, 다가오는 안개 숲을 향해 배를 띄운다. 그림책 속에는 오직 차락차락 노 젓는 소리만 남고 풍경 전체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이 순간 주인공은 정적 속에서 황금빛 아침 풍경을 마주한다. 책을 읽는 독자도 이 풍경을 바라보며 자기 안의 깊은 감정에 도착한다.

《새벽》
아베 히로시 글·그림,
황진희 옮김 | 미래엔아이세움 |
2026





해 뜨기 직전의 고요함을 담은 또 다른 걸작 그림책으로 유리 슐레비츠의 《새벽》이 있다. 아베 히로시는 자신의 《새벽》이 슐레비츠에 대한 존경을 담은 오마주라고 밝혔다. 이 책은 그 아름다운 정적을 간직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한결 풍성하고도 장엄한 새벽의 기운을 그려낸다. 아베 히로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동물원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 왔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 새벽의 주인으로 호명되는 숲과 강의 동물들은 구체적이다. 그리고 온화한 생명력이 넘친다.

바닷가에서 만나는 조용한 기쁨: 《파도가 차르르》

이 책의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한 여자 어린이다. 아이 곁에는 아무도 없고 가만히 다가왔다가 차르르 물러가는 파도 소리뿐이다. 간간이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시시콜콜하게 참견의 말을 던지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말들을 튕겨 낸다. 그리고 모래와 조개껍질, 떠내려온 작은 조각들을 모아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 무언가를 빚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 바닷가를 찾은 나이 지긋한 여성 화가가 유일하다. 파도가 들려주는 잔잔한 차르르 소리와 함께 묵언 수행 같기도 한 두 사람의 작업이 펼쳐진다.

이 책의 원제는 《Hum and Swish》인데, 아이가 만들기에 몰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는 낮은 허밍과 파도의 다정한 화답을 의성어로 표현한 제목이다. 호젓한 바닷가에서 어린이가 만나는 창작의 기쁨을 격려하면서 예술적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몰입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파도가 차르르》
맷 마이어스 글·그림,
김지은 옮김 | 창비 | 2020





《3초 다이빙》
정진호 글·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18

스스로 가능성을 찾는 침묵의 시간: 《3초 다이빙》

이 책은 한 번도 달리기에서 1등을 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의 이야기다. 급식 시간에 밥을 먹는 것조차 남들보다 느리다. 과정보다는 경쟁과 승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주인공은 남들과 무언가를 견주기도 전에 잔뜩 움츠러든 상태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가 휑한 계단을 묵묵히 올라 도착한 곳은 높은 다이빙대 꼭대기다. 다이빙대에 섰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혼자가 된다. 오직 자기 자신의 결단력만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정진호 작가는 어린 시절 화상으로 오른손을 크게 다쳤고 십 대 시절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어린이 병동의 시간은 바깥세상과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혼자 힘으로 용기를 쌓아 나가야 했다. 그가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되기까지 수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던 기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가파른 파란 계단을 오르는 모습과 다이빙 직전 침묵의 순간, 그리고 이어지는 낙하의 해방감이 산뜻하게 전개되는 책이다. 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낙하의 가속도는 같다는 물리 법칙이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인생이라는 다이빙대에 서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김지은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바람 속 바람》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평론집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썼으며,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너와 나의 빨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아이스크림처럼 자주 맛봐야 하는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

누구나 행복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누구도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행복을 느끼는 대상도,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막대한 부를 쥐고도 불행에 허덕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일상만으로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이도 있다. 행복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온 서은국 교수는 행복을 거창한 철학적 관념이 아닌, 냉철한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류가 품어 온 오랜 환상을 걷어낸 자리에 남은 행복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서은국 교수를 만나 행복의 차가운 진실, 그리고 일상을 채우는 따뜻한 조언을 들어본다.

진행. 신병철 | 사진. 신성욱



Q. 인간 심리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행복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심리학은 오랫동안 불행을 없애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경험을 줄이는 데 몰두해 왔죠.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이 둘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행복은 부정적 경험이 없는 '무(無)'가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 있는 '유(有)'의 상태거든요. 학부 시절 우연히 행복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님의 논문을 접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불행을 줄이는 '음수(-)'의 삶보다 평범한 상태에서 즐거움을 더하는 '양수(+)'의 삶을 고민한다는 통찰이 담겨 있었죠. 이후 운 좋게 디너 교수님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 연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Q.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A.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류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고결한 이상으로 여겨 왔어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이성을 지녔다는 믿음이 빚어낸 철학적 관념이죠. 인간 역시 동물이라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의 뇌는 음식을 먹고 짝을 찾는 것과 같은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 쾌감이라는 강력한 보상 스위치를 켜요. 행복을 거창한 도덕적 성취로 보기보다, 생명체로서 험난한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도록 돕는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Q.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조언처럼 정말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A.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까워요. 감정은 레이더 탐지기와 같아요. 위험을 마주하면 공포라는 신호를 켜서 피하게 하고, 유익한 대상을



서은국 교수는 행복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하며, 녹아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일상에서 자주 맛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나면 설렘을 켜서 다가서게 만들죠.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는데 계속 신호가 켜져 있다면 고장 난 레이더잖아요. 인간의 뇌 역시 필요한 순간에만 감정의 스위치를 켰다가 꺼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억지 긍정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자책하게 할 뿐이에요. 행복은 생각으로 조작하는 관념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뇌의 신호예요.

Q.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점을 늘 강조하시는데요.

A. 우리 뇌에는 감정을 빠르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종의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시험에 합격해도 그 벅찬 감정은 며칠을 넘기지 못하죠. 만약 승진의 기쁨이 몇 년이고 지속된다면 다음 단계를 향해 노력할 동기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뇌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어요. 평생 몇 번 찾아오지 않을 큰 행복이라고 해도 금세 증발해 버리고 말아요. 행복감이 높은 이들은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친구와 치맥을 즐기는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아서 결국 녹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녹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자주 맛보는 수밖에 없어요.

Q. 돈이나 사회적 성공 같은 외적 조건과 행복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A.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론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이 생명을 살리니까요. 하지만 결핍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미 갈증이 해소된 상태에서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은 괴로운 일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끝없이 물질에 매달려요. 주식에 빗대자면 가난을 벗어나는 순간 '돈'이라는 종목은 더 이상 행복이라는 이윤을 내지 못해요.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풍성한 사회적 관계'로 종목을 과감히 갈아타야 해요. 돈에만 몰두할수록 타인을 경쟁자나 수단으로 보게 되어 정작 뇌가 가장 갈망하는 인간적인 유대감과 행복에서는 멀어지게 되거든요.



행복은 한 번의 강렬한 쾌감보다 일상에서 즐겁게 치맥을 나누는 소소한 시간처럼 빈번한 경험에 달려 있다.

Q. 행복에는 '사람'이 핵심이지만,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끼는 이들은 타인과 어떻게 교류해야 할까요?

A. 방 안에 틀어박혀 스마트폰 화면만 보며 산다면 행복해지겠다는 기대도 접어야 해요. 사회적 고립은 인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가족이나 소수의 끈끈한 관계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즐거움에는 새로움이라는 자극이 필수적인데, 좁은 관계에서는 이 새로움이 고갈되기 쉽죠. 이때 필요한 것이 '느슨한 관계'예요. 직장 동료나 이웃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주고받는 눈빛이나 인사 같은 것들이죠. 모든 관계에 얽매이기보다 일상에서 부담 없이 온기를 나누는 경험을 늘려야 해요.

Q. 한국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매몰된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봐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내가 즐거우면 그만인데, 우리는 행복마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 내면의 즐거움보다는 번듯한 직함이나 좋은 차 같은 '껍데기'를 바라보게 되죠. 타인의 눈에 맞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은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것과 같아요. 서로를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기 어려워요.

Q.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행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좋아하는 것을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 다 가는 맛집만 찾아다니고 유행을 좇기만 하죠.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다양하지 않으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단



>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환상에 가까워요.
> 억지 긍정을 강요하는 것은
>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자책하게 할 뿐이에요.
> 행복은 생각으로 조작하는 관념이 아니라
>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신호예요.

하나의 기준에 삶 전체가 휘둘리게 돼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으면 타인의 평가는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로 밀려나요. '껍데기'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즐거움으로 일상의 빈틈을 촘촘하게 채워 나가야 해요.

Q. 행복을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많은 분이 행복을 꼭 거머쥐어야 할 '트로피'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트로피를 손에 쥔 순간의 기쁨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행복은 도착지에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행복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볍게 발을 내딛는 순간 자연스럽게 켜지는 기분 좋은 신호예요.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문화와 행복의 관계를 깊이 탐구해 왔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의 지도를 받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4년 뒤 이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연구 논문이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행복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현재 대학 강단은 물론 각종 대중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서은국 교수 저서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 2024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인 개정판이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행복의 본질을 파헤치며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어려울 것 없는 행복》
창비 | 2026
심리학을 바탕으로 행복의 작동 원리를 쉽게 풀어냈다. 막연한 위로 대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의 기술을 전한다.

세계 표준을 바탕으로 세계적 문자를 만들다

세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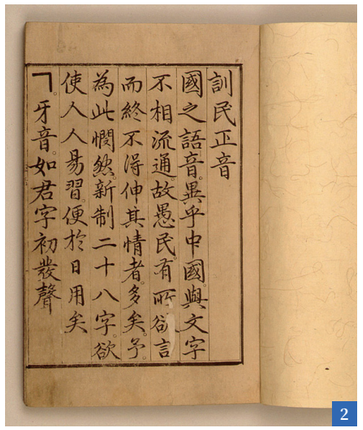
우리 역사상 가장 근면 성실했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군주. 세종대왕(1397~1450)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한글 창제를 비롯한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받는 만큼, 그의 통치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는 드물다.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는 한국·동양 정치사상을 전공하고 조선 초기 국가 건설을 연구해 온 학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그런 아쉬움을 채워줄 기회가 된다.

글. **표정훈**(출판평론가)





1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
使人人易習便於日用矣
ㄱ牙音如君字初發聲
2

1 경복궁의 편전인 사정전. 세종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토론하고 경연을 열며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출처_국가유산청)

2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서문에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배경과 목적이 담겨 있다.

세종의 통치 비결, 직접 활발하게 소통한다

세종이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세종은 재정 확충과 백성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화폐 '조선통보'를 주조해 사용을 강제했다. 또, 단위 면적당 일정 조세를 수확량 조사 없이 부과하는 공법(貢法)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예상되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1446년(세종 28)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새로 입법한 것이 많다. 그러나 내가 현명치 못한 이유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결과를 미리 헤아려서 처리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이 실패를 딛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신하들과 만나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고 그런 자리에 성실히 임했다. 세종의 일과는 '상참을 받고, 시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참은 신하들의 국정 보고, 시사는 국정 현안 토론이다. 윤대는 각 관청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 경연은 유교 경서 내용을 국정과 관련지어 토론하는 자리다. 세종은 이런 자리를 활성화해 정책 결정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상적 덕치와 현실적 법치의 조화

덕치는 군주가 모범을 보이고 미풍양속을 권장해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통치다. 법치는 법과 제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다. "크고 작은 형벌을 신중하게 살피고, 아주 작은 형벌도 모두 조정에서 정한 율문에 따라 집행했다." 세종이 법 적용과 형벌 집행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

태조, 태종 대의 법전을 정비해 《신속육전》, 《신찬경제속육전》 등을 완성하고 시행함으로써 성종 대 《경국대전》 편찬의 기반을 놓았다. 세종은 경연에서 《서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부분에서 형벌을 조심스럽게 삼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비록 형벌은 아름다운 일도 못 되지만 성인도 역시 그만두지 못하셨던 것을 뜻한다."

성왕(聖王)들도 형벌을 사용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종은 조선의 국가 이념은 유교이며 이상은 덕치지만 실제 국가 운영의 수단은 법이어야 한다고 보고 법치를 실천했다.

백성의 편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자, 훈민정음

세종은 1443년(세종 25) 겨울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책을 펴내거나 교서를 내려도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관료들이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문자라는 장벽이 통치의 효율을 저해했던 것이다.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다.

특히 중화(중국 문명)를 따르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별도 문자를 만든 사례는 몽고, 서하, 여진 등 이적(夷狄) 오랑캐밖에 없다는 지적이 세종에게는 뼈아팠다. 그럼에도 세종은 단호했다. 백성의 편리를 위해 임금이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말라며 반대를 물리쳤다. 세종은 편민(便民) 외에 민본(民本), 안민(安民)도 강조했다.

훈민정음은 당시의 세계적 표준들을 활용한 세종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새로운 문자를 시험하면서 집현전 학사들에게 원나라 때 편찬된 한자 표준 발음 사전 《운회》를 번역시켜 참고했다. 원나라 파스파 문자도 새 문자 구상에 영감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훈민정음에는 인도·동아시아 음성학의 성과와 고려의 유산도 반영되어 있다. 고대 인도에서 발달한 음성학이 불교 전래, 불경 간행과 함께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또한 명나라 홍무제가 편찬한 《홍무정운》을 염두에 두고 한자의 우리말 표준음을 설정한 《동국정운》을 편찬했다. 세종은 인도 문명과 동아시아 불교 문명, 원나라의 유산 및 중화의 문화적 성취 등 세계 표준이라 할 만한 것들을 두루 수용해 세계적인 수준의 독창적 문자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3 조선 최초의 금속 화폐인 '조선통보'. 재정 확충과 백성의 편의를 위해 유통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화폐 정책으로 남았다. (출처_국립중앙박물관)

4 세종 대에 처음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해시계 '앙부일구'. 《세종실록》에는 글을 모르는 백성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십이지신 그림을 새겨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5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능인 영릉 (출처_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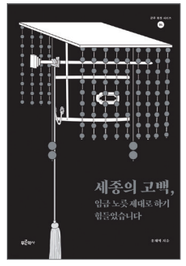


무엇이 달랐는가? 막중한 책임 의식, 쉼 없는 성실성

1450년(세종 32) 2월 17일, 막내아들 영응대군의 집에서 세종이 세상을 떠났다. 54세 나이였고, 32년간의 통치였다. 실록 편찬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힘써 정신을 차려 다스리니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다. 문과 무의 정치가 빠짐없이 잘 되었다."

저자 송재혁 교수(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는 세종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국왕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세종은 역사를 잘 알았고, 평생 자신이 어떻게 역사에 남을지 고심했다는 것.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라는 책의 제목은 이러한 책임 의식을 표현한 말이다. 세종은 막중한 책임 의식으로 "이후 조선이 450년 이상 유지되는 초석을 놓았고, 이전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성취를 집대성했으며,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송재혁 지음 | 푸른역사 | 2022
사후의 칭송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국왕이라는 정치 행위자로 살아간 한 인간 '이도'의 행적을 고찰한 평전이다. 장형 양녕의 처우, 골칫거리 며느리 처리 등 군주 이전에 왕실의 가장인 인간 세종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

표정훈 작가, 평론가.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국대학교 강사로 재직했다. 삼성출판박물관 전시기획자문위원이며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산업노동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끝난 세상에도 삶은 계속된다

《도그 스타》가 그린 생존과 희망

세상이 망해버린 걸까. 아내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쓰러져 갔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 출신 작가 피터 헬러의 소설 데뷔작 《도그 스타》는 꽤 신선하다. 대재앙으로 인류 문명이 무너진 이후를 그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작품이지만, 절망과 공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실낱같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어느 순간 의아해질 정도로 애잔하고 목가적이다. 이 소설이 코로나19 팬데믹 수년 전 출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의미는 배가된다.

글. 하성태(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 **사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멸망한 세계, 서로 다른 생존법

"우리는 구 년째 버티고 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다음에는 혈액병으로 더 죽어 나갔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이 벌판에 나와 살고 내가 매일 순찰 비행을 하는 이유다."

마흔 살 남짓의 주인공 힉은 시를 즐겨 썼던 특이한 이력의 건축 노동자다. 그가 대화할 상대라곤 충직한 애견 재스퍼와 은신처인 작은 공항을 함께 점거 중인 뱅리뿐이다. 뱅리는 전염병을 앓은 듯한 침입자들을 냉혹하게 제거하는 데 도가 튼 인물이다.



힉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극에 달할 때쯤 그에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온다.

책을 읽고 나면 기존 아포칼립스 소설과는 다른 결을 지닌 이 작품을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화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8월 개봉한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서른 번째 영화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트위스터스> 등의 시나리오를 맡은 마크 L. 스미스가 각색했다. 백전노장 감독을 매료시킨 원작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행으로 견디는 슬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 협상도 없었다. 다른 말이 아닌 그 말로. 나는 비행했다. 그는 죽였다. 재스퍼는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인정했다."

《도그 스타》의 인물들이 생존하는 법이다. 힉은 경비행기를 몰며 정찰하고 세상에 남은 식료품을 조달한다. 그의 비행은 힉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성찰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공항에 철 무더기를 차에 싣고 나타난 뱅리는 그 철들을 총으로 개조해 침입자들을 냉정하게 제거한다. 힉은 그런 뱅리의 생존술을 투덜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습득해 나간다. 힉이 사유하는 단독자에 가깝다면, 뱅리는 생존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인물이다. 둘의 느슨한 듯 단단한 우정 혹은 동지애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힉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은 감정과 회상, 혼잣말을 따라 콜로라도주의 대자연과 경비행술, 플라이 낚시를 애잔하게 그려낸다. 힉은 살아남기 위해 1956년형 경비행기를 몬다. 목적은 없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응답 없는 무전을 날리고 황폐한 세계를 비행하며, 고립감과 상실감, 죄책감을 잠시 잊는다. 뱅리가 아무리 시간 낭비라 구박해도 어쩔 수 없다. 고통으로 인해 죽여 달라 호소하는 임신부 아내를 제 손으로 보내준 힉이 살아낼 수 있는 활로가 고작 그것뿐이다. "슬픔은 하나의 원소다. 탄소나 질소처럼, 자신의 주기를 갖고 있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에 들고 날 뿐이다."

10년 가까이 생존한 것이 기적이다. 마음을 달래주는 재스퍼가 있었기에, 또 침입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적 방어를 담당해준 뱅리가 있어서다. 재스퍼와 산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은 역설적이다. 힉에게 비행과 산행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기 위한 일상이었지만, 그곳에서 재스퍼를 잃었다. 그리고 힉의 감정적 비행(非行)이 없었다면 두 남자의 미래도 달라졌을 테다. 후반부 마지막 희망을 부여하는 의사



《도그 스타》
피터 헬러 지음, 이진 옮김 | 문학동네 | 2016
대재앙 이후 홀로 살아남은 힉의 시선을 따라 상실과 고독,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린다. 재스퍼와 뱅리, 시마와 팝스를 만나며 달라지는 힉의 삶을 통해 폐허가 된 세계에서도 이어지는 인간의 생을 이야기한다.



시마와 아버지 팝스를 만날 가능성도 줄었을 테니. 그런 점에서 리들리 스콧이 영화 제목에 '마지막 희망'을 붙인 것은 소설 속 여러 역설을 대중 화법으로 적절히 옮긴 것에 가까워 보인다.

원작의 사색을 영화의 관계로 옮기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스토리텔러보다 비주얼리스트라는 평가에 토를 달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최신작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그 중간 어디쯤 속하는 작품이다. 콘셉트와 캐릭터는 원작에 빚진 바 크지만, 대자연 앞에 선 인간과 황폐해진 세계 속 사냥과 생존의 시각화는 감독의 장기라 할 수 있다. 원작과의 차이는 이 노장 감독이 왜 이 작품을 택했는지 짐작하게 하며, 소설의 영상화 과정을 보여주는 교본이 될 만하다.

우선 힉과 시마의 연령대가 낮아졌다. 원작에서 30대 후반이었던 두 인물은 영화에서 제이콥 엘로디와 마거릿 퀄리가 연기하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생존자로 그려진다. 반면 뱅리는 1968년생이자 <어벤저스> 시리즈의 '타노스'로 친숙한 조시 브롤린이 맡았다. 이에 따라 힉과 뱅리의 관계도 형제 같은 동료애에서 유사 부자 관계나 멘토-멘티 관계로 달라졌다. 생존자들의 세대 차이가 벌어지면서 영화는 가족 드라마의 분위기를 짙게 띤다. 영화는 힉과 시마의 성장과 이들이 뱅리, 혈액병 환자 공동체와 이루는 유사 가족 관계에 더 방점을 찍는다.

또 영화는 원작보다 액션, 그러니까 적대적 무리와 벌이는 몸싸움을 곳곳에 배치하고 강조한다. 후반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그랜드 정션의 관제탑에서 벌어지는 액션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 특유의 비주얼리스트로서의 장기가 잘 살아난다. 소설 속 사색과 실존과 고독은 옅어졌고, 액션과 유대감과 가족성은 짙어졌다. 영화 속 재스퍼의 죽음이나 힉과 시마의 첫 만남의 차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영화가 훨씬 쉽고 대중적이며 편안해졌다.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영화가 소설을 영화화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작품이다.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
리들리 스콧 감독 | 20세기 스튜디오 | 2026
원작의 내밀한 독백을 덜어내고 폐허가 된 세계의 위협과 생존의 긴장감을 스크린에 담았다. 대자연과 비행, 액션을 앞세우고 서로 다른 세대의 생존자들이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하성태 영화 및 대중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무비스트>, <FILM2.0>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브런치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사, 방송, 영화에 대한 비평을 연재하고 있다.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전국 사서 소통의 장 마련
'2026 사서한마당' 개최

55
국내 도서관 소식
국립장애인도서관
'내책방 북토크쇼' 개최

58
국외 도서관 소식
유네스코
'2028 세계 책의 수도' 후보 도시 모집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읽으면 보이는 퀴즈
이달의 최애 문장

1 전국 사서 소통의 장 마련 ‘2026 사서한마당’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 사서한마당’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전국 도서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전국 82개 도서관에서 97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는 ‘도서관과 사서 이야기’ 영상공모전 현장 투표도 진행되었다. 본선 진출작 12편을 참가자들과 함께 감상한 뒤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중곡도서관의 ‘(도서관 너머 도서관) 라이브러리 다마스’가,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인 우수상은 홍익대학교의 ‘Library Paradise(라이브러리 파라다이스)’ 등 4편이 수상했다.

문의 도서관인재개발과(02-590-0553)



‘2026 사서한마당’ 포스터

2 국내 최대 독립출판 축제 ‘202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스토리지북앤필름과 공동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최대 독립출판 축제 ‘202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출판물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책과 독립출판을 주제로 한 북토크가 진행되었다. 소설가 김금희와 디앤디파트먼트 식문화 디렉터 유키 아이마, 안온북스, 다람출판사, 에코아일랜즈 대표 등이 참여해 독립출판 현장의 경험과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모빌이 되는 진(ZINE) 만들기’, ‘핸드바인딩 노트 만들기’, ‘드로잉’ 등의 워크숍도 마련되었다. 야외마당에서는 13개 팀의 작가 낭독회가 열렸으며, 13종의 오디오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더불어 독립출판물이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납본 홍보 부스를 운영해 현장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았다. 협력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관과 함께 현장에서 창작물의 권리, 타인의 저작물 이용 등 독립출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문의 장서개발과(02-590-6369)



‘202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포스터

3 AI 서비스 개발에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도서관 정보나루’ MCP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빅데이터를 AI 서비스 개발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나루’에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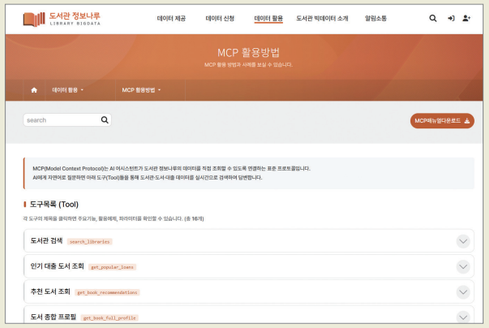
도서관 정보나루는 전국 약 1,600개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대출, 도서관 운영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다양한 통계 정보와 Open API를 제공하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약 2억 권, 회원 약 4,200만 명, 대출 약 24억 9,000만 건 등 약 27억 건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Open API 누적 활용 건수는 5억 건에 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AI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해 인기대출도서, 도서 상세정보, 소장 도서관 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개발자는 AI 챗봇, 도서 추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도서관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출판업계, 서점 등에서도 독서 수요와 이용 경향 등을 AI로 분석해 도서 추천과 콘텐츠 기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 연계 방식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6314)



‘도서관 정보나루’ MCP 서비스 제공 화면

4 네팔도서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방한 연수단 교육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네팔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한 연수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네팔의 주요 도서관은 2015년 대지진 이후 귀중본 등 문화유산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23년부터 네팔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5년 아시아개발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네팔국립도서관, 카이저도서관, 네팔도서관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11개 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장서각 등을 방문해 디지털화와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문헌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서비스’와 ‘고신문 디지털화: 최신 아카이빙 프로세스’를 주제로 국가 문헌 보존과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0561)



네팔도서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방한 연수단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모습

5 웹DB 57종 체험 기회 ‘2026년 구독 전자자원 박람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16일 본관 1층 열린마당에서 ‘2026년 구독 전자자원 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 이용자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웹DB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연구·학습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7종의 국내외 웹DB를 구독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도 도서관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자자원 제공업체가 직접 참여한 총 11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각 부스에서는 웹DB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자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공개 워크숍을 신설해 연구·학습에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실무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박람회와 하반기 오프라인 박람회를 운영해 전자자원을 접할 기회를 넓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전자자원을 연구와 학습,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02-3483-8847)

6 국립세종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국립세종도서관이 운영하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1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올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정보자원 공유와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기관상은 농촌진흥청이, 개인상은 전북연구원 김혜성, 광주연구원 문찬웅, 한국은행 조수현 등 3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미나는 ‘AI 시대, 도서관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와 전문도서관의 역할, 사서 역량, 저작권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최재운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배경재 교수의 ‘AI 시대, 전문도서관 서비스 및 사서 역량 재정립 방안’,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의 ‘도서관 AI 활용 관련 저작물 이용 가이드 및 저작권법 사례’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부산연구원이 회원기관 사례발표를 통해 AI와 정책정보서비스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044-900-9062)



‘2026년 국립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원 오프라인 박람회’ 현장 모습



‘제1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단체 사진

1 국립장애인도서관 ‘내책방 북토크쇼’ 개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난 9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내책방 북토크쇼’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책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이 제공되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1부에서는 피트니스 선수이자 모델, 작가로 활동하는 유튜버 윤너스가 《나는 한 팔을 잃은 비너스입니다》를 집필한 계기와 삶의 한계를 극복해 온 경험을 이야기했다. 2부에서는 유튜버 원샷한솔이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에 담은 의미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긍정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3부에서는 북플루언서 책여사가 소규모 오프라인 독서모임을 통해 참여자들과 선정 도서에 대한 감상을 나눴다.

2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문학의 장 ‘2026 대한민국 문학축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한국문학관, 국제펜한국본부 등과 함께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대학로와 전국 각지에서 ‘2026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의 가치를 확산하고, 작가와 독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주간, 세계한글작가대회 등 국내 주요 문학 행사와 국립한국문학관과 지역문학관, 서점, 도서관들이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김애란 작가와 칠레의 벵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대담을 시작으로 8개국 해외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자들과 만났다. 문학주간에는 ‘곁눈질’이라는 주제로 김애란, 최진영 작가 등 167명의 작가와 예술가가 참여해 48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는 김주혜, 김진명 작가 등이 한글문학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2026년 문학나눔’ 선정 작가인 김초엽, 연여름, 공희경 작가가 국내 SF소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책방 북토크쇼’ 포스터



‘2026 대한민국 문학축제’ 포스터

3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및 13개 산하협의회는 ‘대전환의 시대, 도서관의 힘’을 주제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광주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3회(2026년)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최신 도서관 정책과 신기술을 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장이자, 전국 각지의 사서와 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과 비전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2026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과 이병목 참사서상 시상식을 비롯해 도서관문화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40여 개의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이 진행되며, 전남 광주 소재의 도서관을 직접 둘러보는 도서관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원과 전국 도서관 직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등록과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conference.kl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폰 프리’ 문화 확산 동참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폰 프리(Phone Free)’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폰 프리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문·예·체(Reading·Arts·Sports) 교육활동을 지원해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 과천도서관은 9월부터 어린이 열람실 일부 구역과 청소년실을 ‘폰 프리 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스마트폰 없이 독서에 집중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청소년실에는 휴대전화 보관함을 비치했다.

의정부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에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보관 카드를 받는 ‘폰 수면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도서관은 자료실 내에 ‘폰 오프, 지금은 책 읽는 시간’ 코너를 마련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9월 독서의 달 맞이 전국 1만여 건 독서문화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국민이 일상에서 책을 다채롭게 접하고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과 지역서점, 기관 1,572개와 함께 1만여 건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행사인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 춘천에서 열렸다. ‘책의 물결, 춘천 산책(冊)’을 주제로 100여 개 출판사와 독서단체가 참여해 김유정문학촌과 공지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전시, 공연, 강연을 선보였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전북, 제주, 서울, 대전에서는 ‘야외 도서관’, 충남에서는 ‘책 올림픽’, 부산에서는 ‘보드게임 대축제’, 강원에서는 ‘마음 다독(多讀) 고전 약국’ 등이 진행되었다. 오는 10월 5일, 경북 안동에서는 선성수상길에서 소리책을 들으며 걷는 융합 독서 프로그램이, 10월 12일 충남 공주에서는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각각 우숙영, 김애란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을 체험하는 공간을 운영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일정과 참여 방법은 독서인(readin.or.kr)과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korearf.kpi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제1회 영등포구 북페스타: 오늘만 북클럽’ 개최

영등포구는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문래근린공원에서 ‘제1회 영등포구 북페스타: 오늘만 북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도심에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쉴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북토크와 버스킹 공연, 도서관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했으며, 야외 서가에는 책 1,000여 권을 비치했다.

북토크는 민음사 조아란 마케터와 김화진 작가의 ‘악마는 열심히 읽는다’를 시작으로 19일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정용실 KBS 아나운서가 참여한 ‘책 읽는 도시, 생각하는 영등포’가 이어졌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미래 사회는 행복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테이지 영등포’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북페스타 세리머니와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책을 활용한 기념품 만들기와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찾아보는 북큐레이션, 손글씨로 문장을 따라 적는 ‘사각사각 필사클럽’, 야외에서 책을 읽는 ‘오늘만 책멍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63회(2026년)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포스터



과천도서관 ‘폰 프리 존’ 안내물



9월 독서의 달 포스터



‘제1회 영등포구 북페스타: 오늘만 북클럽’ 포스터

국외 도서관 소식

유네스코

‘2028 세계 책의 수도’ 후보 도시 모집

유네스코(UNESCO)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28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 후보 도시를 모집한다. 세계 책의 수도는 책과 독서, 문해력, 지식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한 도시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세계 책의 수도는 도서관을 비롯해 출판사, 작가 단체, 서점 등 도서 분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과 국제출판협회, 국제작가포럼, 유럽·국제서점연맹 등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며, 최종 선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후보 도시로 신청하려면 도서관협회 등 도서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 최소 2곳과 해당 국가 유네스코위원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2027년 세계 책의 수도로 콜롬비아 메데인이 선정되어 2028년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도시가 후보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국가의 도시도 신청할 수 없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6년 주요 수상 결과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지난 8월 ‘2026 다이내믹 유닛 및 임팩트 어워드’와 ‘IFLA/제임스 베넷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2026’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다이내믹 유닛 및 임팩트 어워드는 IFLA 내 전문 조직 가운데 업무 품질과 영향력, 리더십,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분야를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 종합 성과 부문에는 보건·생명과학 분야(HBS)가 선정되었다. HBS는 2025~2026년 동안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 개발과 멘토링 기회를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

IFLA/제임스 베넷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2026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메사 게이트웨이 도서관이 수상했다. 이 도서관은 독서와 학습, 창작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사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와 함께 야외 독서 공간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6 그린 라이브러리 어워드’ 수상 결과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환경·지속가능성·도서관 전문 조직(ENSULIB)은 ‘제11회 IFLA 그린 라이브러리 어워드 2026’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된 이 상은 도서관 분야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우수 도서관과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부문 1위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라미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도서관은 19세기에 군인들이 주둔하던 건물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한 프로젝트로 수상했다. 2위는 중국 진장도서관, 3위는 아일랜드 먼스터공과대학교 도서관이 차지했다.

그린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부문 1위에는 스페인 칸타브리아의 환경교육 문서·자료센터(CEDREAC)가 선정되었으며,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이 ‘리빙 라이브러리: 도시 생태계 통합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2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니안 폴리테크닉 리엔잉차우도서관과 브라질 상파울루 빌라로부스공원도서관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아베이루대학교의 도서관·문서관리·박물관 서비스가 드 그뤼터 특별상을,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도서관이 ENSULIB 상임위원회 특별상을 받았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1. 읽으면 보이는 퀴즈



《오늘의 도서관》을 즐겁게 읽으셨나요?

소식지를 꼼꼼히 읽은 후, 이번 호에 등장한 도서 **5권**을 찾아보세요.
당첨된 두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소식지 09쪽, 14쪽, 21쪽, 22쪽, 47쪽을 살펴보세요.

① 《직관과 객관》, 키코 야네라스
② 《내 인생이 왜 당신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김경일
③ 《주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앨릭스 에드먼스
④ 《악마는 열심히 산다》, 김화진
⑤ 《아름다운 것들은 비밀을 품고 있다》, 파묘
⑥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때요?》, 조슈아 플레처
⑦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⑧ 《시대예보: 수고인류의 시간》, 송길영
⑨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송재혁
⑩ 《태양 아래 올리브》, 김초엽

❶ 퀴즈 풀기



2. 이달의 최애 문장

❷ 응모하기

최근에 읽은 책들 중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나요?

책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만의 **최애 문장**을 적고,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한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해당 원고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1. 읽으면 보이는 퀴즈 지난 호 당첨자 방*사(0725) 최*희(3046)

2. 이달의 최애 문장 지난 호 사연 강*희(9340)

그 빛은 여전히 서툰 인간들의 감춤과 드러냄 사이에서, 짐작과 망설임 속에서, 철 지난 유행가 속에서 수시로 조그맣게 반짝일 거다. 다만 주위가 너무 환해 잘 드러나지 않을 뿐. 나는 그걸 이제서야 겨우 깨친다.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지금, 삶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작가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랬다고 적었다》 | 김애란 지음 | 문학동네 | 2026

참여 기간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까지 **당첨자 발표**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연락